국별 리포트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Ⅰ. 일반개황 2

Ⅱ. 경제동향 3

Ⅲ. 정치·사회동향 10

Ⅳ. 국제신인도 14

Ⅴ. 종합의견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757천㎢	G D P	2,661 억 달러
인 구	17.40 백만명	1 인 당 GDP	15,292 달러
정 치 체 제	대통령제	통 화 단 위	Peso(Ps)
대 외 정 책	경제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486.50

□ 칠레는 남미 대륙 남서부 태평양연안 국가로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인구는 약 1,740만 명이며, 인종은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66%, 백인이 29%, 원주민이 5%로 구성되어 있음.

□ 피노체트 군부독재(1974~1990) 이후 국민화합을 중시하는 점진적이며 온건한 민주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풍부한 광산자원, 임산자원,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며, 자유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4.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견실한 경제성장세 지속

○ 칠레 경제는 최근 10년(2003~2012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4.7%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냄.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3%로 전년 대비 1.9%p 하락했으며, 2009년에도 상반기까지 이어진 급격한 민간 소비 및 투자 감소, 그리고 수출 감소로 인해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1.0%)을 기록함.

- 2010년 2월, 강도 8.8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경제가 일시적으로 위축됐으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공공지출 등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한편, 세계 경기 및 구리 가격 회복세 전환에 따른 수출 증가로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0년 2월 27일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과 이어진 쓰나미로 500여명의 사망자와 5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지진 피해액은 297억 달러(GDP의 17%)로 집계됨.

- 2011년 들어서도 소비 증가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한편, 국제 구리가격의 고공행진 지속과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구리와 농수산물 수출 증가로 6.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2년에도 지진피해 복구 사업,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인 FDI 유입 증가에 따른 총투자 증가(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5.8%로 전년 대비 1.2%p 증가), 실질임금 상승 및 신용접근 용이성 증진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1인당 GDP는 15,292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범위(2~4%) 내 안정적인 수준 유지

○ 물가는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통화(Peso) 강세와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원유와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이들 품목의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 물가가 큰 변동을 보이는 등 다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0년에는 지진 피해로 인한 농수산물 공급 감소에 따른 식품가격 상승 및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페소화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하락에 힘입어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전년과 비슷한 1.4%를 기록함.

- 2011년 들어서는 내수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됐으나,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 강화(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2%p 인상)와 페소화 강세 지속으로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 내인 3.3%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 2012년에도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유사한 3.1%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함.

* 칠레 기준금리 : 0.50('10.1월)%→3.25%('11.1월)→5.00%('12.1월)→5.00%('13.1월)

□ 재정건전성 매우 양호

○ 칠레 정부는 2000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1%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수지 흑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재정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 2004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 및 FTA에 따른 수출 증가, 경기 호조에 따른 세원 확대 등 재정수입의 증대로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6~08년 동안 GDP의

5%를 상회하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함.

- 그러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와 국제 구리 가격 하락 등으로 재정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한편 경기 부양책 추진에 따라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6년 만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 2010년에는 대규모 지진 피해 복구 작업, 빈곤층 지원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요 광업회사로부터 로열티를 추가 징수하는 등 세원을 확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균형 수준을 회복했으며, 2011년에는 경기 활성화와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에 힘입어 소폭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12년에는 인프라 투자로 정부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구리가격 하락으로 재정수입은 감소했으나 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0.5%)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돼 여전히 양호함. 또한, 법인세율 증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금개혁을 실시하여 향후 재정수입 증가가 전망됨.

- 한편 칠레 정부는 교육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교육비지출 증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11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향후 재정수지 건전성이 현재 수준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경 제 성 장 률	3.3	-1.0	6.1	6.0	5.5
재 정 수 지 / G D P	4.99	-4.18	-0.28	1.49	0.50
소비자물가상승률	8.72	1.48	1.41	3.34	3.11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광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

○ 칠레 총 수출의 절반 이상이 광물 수출이며 특히 구리 수출이 43.7%에 달해 최근 수년간 구리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높은 수출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교역대상국 다변화

○ 주요 교역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유로존 위기 등 특정 지역의 경제불황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 2011년 주요 수출대상국: 중국(21.9%), 일본(11.0%), 미국(10.8%), 브라질(5.4%)

□ 제조업 기반 상대적으로 취약

○ 수입 자유화 등 급진적인 시장 개방으로 국내 제조업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칠레는 광업 위주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제조업의 발전 단계를 건너 뛰어 바로 3차산업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나. 성장 잠재력

□ 부존자원 풍부

○ 칠레는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의 1/3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요오드, 몰리브덴, 초석, 리튬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들 자원이 지표면에 가까이 매장되어 있어 채광의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음.

□ 지정학적 장점 보유

○ 칠레는 남북으로 4,000km를 넘는 해안선이 태평양에 접해 있고 긴 해안선을 따라 일찍이 형성된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로의 진출도 용이하여, 중남미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연결하는 무역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정학적 장점을 지니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경제 개방 지속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되고 견실한 성장세 지속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종속 이론의 영향으로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 산업화 경제정책을 추구한 반면 칠레는 1973년 피노체트가 집권하면서부터 시장 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음.

○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을 탈피하여 시장 원리에 기초한 민간 주도의 성장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 고용, 국내 저축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거시 경제 안정과 더불어 정부 규제의 투명성, 의사 결정의 예측 가능성 등이 칠레 경제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국가 경쟁력, 경제자유지수, 부패 등 각종 국가 순위지표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함.

- 세계은행의 비즈니스환경 순위: 37위/185개국(2012)
- 다보스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순위: 33위/144개국(2012~13)
-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순위: 7위/177개국(2013)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순위: 20위/176개국(2012)

3. 대외거래

□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소폭의 수출 감소 기록

○ 최대 수출상품인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어 칠레의 상품수출 규모는 2003년 217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680억 달러로 3년간 3.1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반전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19% 감소한 540억 달러를 기록함.

○ 2010년에는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 회복 및 구리 가격상승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29.6% 가량 증가한 7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수출액은 814억 달러를 달성함.

○ 2012년,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7.8%로 전년 대비 1.5%p 감소)되고 주력 수출품인 구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칠레의 상품수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789억 달러로 나타남. 이에 따라 총수출증가율이 -2%를 기록하고 GDP 대비 총수출 비중도 37.93%로 전년 대비 3.54%p 감소하였음.

- 2011년 하반기부터 구리 가격이 하락하여 2011년말 구리의 국제가격은 동년 8월말 대비 17% 하락한 1톤당 7,6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중 이러한 가격 수준이 유지됨.

□ 경상수지는 2009-10년 흑자에서 2011-12년 적자로 전환

○ 2008년을 제외하고,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2004~2010년 중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달성하였음.

○ 2011년 하반기 구리가격이 급락하고 주요 수입품인 원유의 국제가격은 상승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2012년에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돼 경상수지가 -9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GDP(%) : 1.5('09년)→1.8('10년)→△1.3('11년) →△3.5('12년)
** 구리가격(USD/ton) : 9,160('11.8월말)→7,600('11.12월말)→7,931('12.12월말)

□ 외국인 직접투자 대폭 증가

○ 2003년 이후 내수경기 회복과 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체결 등으로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광업, 전력, 용수 등 인프라 부문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FDI 유입액은 2002년 20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에는 152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 지연으로 FDI 유입 규모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29억 달러를 기록함. 그러나 2010년 세계 경기 회복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수익 상승으로 칠레 광업진흥공사(Codelco) 등을 중심으로 지연된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됨에 따라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FDI 유입이 급증하여 연중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연중 FDI 유입이 급증하여 24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對칠레 FDI 유입액: 129억 달러('09년)→151억 달러('10년) →172억 달러('11년) →246억 달러('12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경상수지	-3,307	2,570	3,802	-3,219	-9,330
경상수지/GDP	-1.84	1.49	1.76	-1.30	-3.51
상품수지	8,529	14,117	15,854	10,793	4,549
수출	66,259	54,005	71,028	81,411	78,881
수입	57,730	39,888	55,174	70,618	74,332
외환보유액	22,849	23,849	26,318	40,117	38,873
총외채잔액	64,318	73,139	86,345	100,845	107,445
총외채잔액/GDP	35.8	42.3	39.9	40.6	40.4
DSR	19.4	26.7	16.5	15.0	19.4

자료: IMF,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안정적인 정치체제 유지

○ 칠레는 실용주의적 중도정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고, 다수 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나 각 정당은 여당인 중도우파연합(Coalicion) 또는 야당인 중도좌파연합(Concertacion)에 소속되어 양당제 성격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교육개혁 시위 이후 피녜라 대통령 지지율 하락

○ 2010년 1월 17일 대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의 피녜라(Sebastian Pinera) 후보가 51.61%의 득표율을 기록해 48.38%에 머문 집권 중도좌파연합의 프레이(Eduardo Frei Montalva)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이에 따라 피노체트 이후 20년만에 중도좌파연합에서 중도우파연합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취임 직후 50%에 육박한 피녜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011년 교육개혁 시위가 발발한 후 급감하여 2012년 4월 26%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2월말 지지도는 38% 수준으로 회복됨.

-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정권(1974~1990년) 당시 교육예산을 급격히 삭감하면서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학비부담과 불공정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피녜라 정권이 교육예산 축소방침을 발표하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교육제도 변화를 추진하자 2011년 4월 대대적인 교육개혁 시위가 발발, 사회 전반에 확산됨

- 교육정책이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6%에서 2%로 삭감하고 교육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함. 이에 더해 실업률이 역사적 저점(6.4%)을 기록하면서 피녜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회복세로 전환되어 2013년 2월 기준으로 시위 발생 이후 가장 높은 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1월 대선 및 총선 실시 예정

○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지지집단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당연합의 구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양당제 성격의 양대 정당연합이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10월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인 중도좌파연합이 승리(전체의 49% 득표, 여당은 33% 득표)하며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으며, 퇴임 직전까지 8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칠렛 전 대통령이 야당의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시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과 시현

○ 칠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층 축소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칠레의 빈곤층 비율은 1990년 38.9%에서 2006년에는 13.7%로 낮아졌으며, 절대 빈곤층 비율도 17.4%에서 3.2%로 크게 감소함.

○ 한편, 2010년 7월 칠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칠레의 빈곤층과 절대 빈곤층비율이 각각 15.1%(256만4천명)과 3.7%(63만4천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빈곤문제 해결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시점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고용 사정 및 사회적 동질성 양호

○ 2009년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사정 악화로 실업률이 9.6%까지 일시 상승한 바 있으나, 2010년 7.1%, 2012년에는 6.4%까지 하락하여 양호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인구의 95%가 백인 및 메스티조이고, 주민의 85%가 카톨릭 신자로 사회적 동질성이 높아 인종, 종교간 분쟁가능성은 매우 낮음.

- 그러나 최근 칠레 남부지방에서 마푸체 원주민에 의한 방화, 경찰서 습격 등 폭력사태가 수 차례 발생하면서 이 지역 원주민-비원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원주민의 불만해결 및 폭력사태 방지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광산 붕괴 사건 이후 사회의 동질성이 강화되고 국가 이미지도 상승

○ 2010년 8월 8일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어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으나, 이후 69일만에 전원 구조됨에 따라 칠레 사회의 동질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 발생부터 매몰 광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칠레가 보여준 신속하고 단호하며 효율적인 대응능력은 피녜라 정권 차원을 넘어서 칠레가 그 동안 축적해 온 국가적 역량을 국제사회에 입증함으로써 국가 이미지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음.

□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 낮음

○ 여당연합(Coalicion)과 야당연합(Concertacion)내 각 정파가 경제 정책, 교육 정책, 사회 복지 정책 등에 대해 사안별로 합종 연횡을 거듭하고 있으나, 대체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회 문제해결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어, 일부 노조 및 학생 시위는 있어도 대규모 소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 2011년 4월부터 시작된 교육정책 반대 시위가 1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정부가 교육예산 추가 배정 등 교육정책 개혁 요구를 수용하면서 갈등이 완화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OECD 31번째 회원국 가입

○ 칠레는 2010년 1월 11일 남미 국가로서는 처음이자,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OECD 31번째 회원국이 되었음. OECD는 성명에서 "칠레를 OECD회원국으로 승인한 것은 거의 20년간 이루어진 민주적 개혁과 건전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라고 밝혔음.

- OECD 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칠레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활발한 통상 외교 전개

○ 2012년 6월, 멕시코와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4개국들이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을 체결하여 신 경제블록을 구축함.

○ 미국, EU 등과는 FTA 체결 이후 경제 통상 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인도와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음.

○ 인접국인 아르헨티나 및 페루와 에너지 및 운송 네트워크 통합을 확대하고 국경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경제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2004년에 천연가스 수입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와 갈등*을 빚은 바 있고, 인접국인 볼리비아, 페루와의 국경 문제가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가 에너지 위기로 칠레 앞 천연가스 수출을 축소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를 전량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는 칠레가 전력난을 겪으면서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해외 자금 조달이 원활하며, 외채 상환 태도 양호

○ 1982년에 중남미 외채 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민간은행 외채 67억 달러의 지급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 대외 신인도 유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왔음.

○ 1985~90년 사이 채무 주식화 방식(debt-equity swap)으로 외채를 재조정하여 약 100억 달러의 채무 부담을 경감한 바 있음.

○ 신흥시장 외환위기 여파로 한때 해외 차입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외채 상환 태도가 양호하고 1990년 이후 IMF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음.

2. 국제시장평가

□ 각종 신용평가기관에서 중남미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부여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3. 4.)	B1 (2012. 7.)
OECD	2 (2012. 6.)	2 (2011. 6.)
Moody's	Aa3 (2010. 6)	A1 (2009. 3.)

○ 칠레는 효과적인 재정 통화 정책, 정부의 투명성, 금융 부문 안정 등을 이유로 Moody's와 S&P 그리고 Fitch로부터 각각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Aa3, AA-, A+ 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 OECD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동국 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S&P는 2012년 12월, 탄탄한 내수경제 및 높은 구리가격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며 칠레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2010년 6월 Moody's는 대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재정수지 관리와 빠른 경제회복을 동시에 달성한 점을 반영하여 칠레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종전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1년 2월 Fitch도 칠레 경제의 대외 충격에 대한 내성 강화 등을 감안하여 칠레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였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전액 인수 가능

○ 영국 ECGD: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 국가로, 체결 이후 교역 규모 지속 증가

○ FTA체결 이전 양국간의 교역 규모는 1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FTA가 발효된 2004년에는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67.7% 증가하여 2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사상 최대인 7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폭 감소하였음. 2010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71억 달러(수출29억 달러, 수입4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72억 달러, 2012년에는 71억 달러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구리의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구리 수입 증가로 우리나라가 20억 달러 대의 무역 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대 칠레 직접투자도 지속 증가

○ 우리나라의 대 칠레 직접투자 규모는 2012년말 기준으로 누계 55건, 5.9억 달러 수준이며, 주로 도소매업과 광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표 4> 한·칠레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2,947	2,381	2,469	구리, 과일, 해산물, 제지, 화학제품
수 입	4,221	4,857	4,676	석유 및 관련제품, 전기전자제품,
합 계	7,168	7,238	7,145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칠레는 지속적인 시장경제체제 추진과 국제 구리가격 상승,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을 지속하며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달성해 왔음. 2012년에도 투자증가 등에 힘입어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통상에 유리하여 성장잠재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2010년에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OECD 회원국이 되었으며, 비즈니스 환경, 국가 경쟁력, 경제자유 지수, 부패 등 각종 국가 순위 지표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빈부격차, 치안, 부정부패 등에 대한 우려도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아 정치·사회적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구리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총수출증가가 둔화되고 DSR도 다소 악화된 점이 우려됨. 그러나 재정흑자 목표제, 물가 목표제 및 자유변동 환율제와 같은 제도적 경제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칠레의 국가신용도 수준은 매우 안정적인 상황임.

조사역 이주은 (☎02-3779-5712)
E-mail: june@koreaexim.go.kr